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연준의 정책 전환을 이끌 인플레이션 신호는?
- ◇ (초점)-美 4월 물가 받아든 韓 채권딜러들의 선택: 흥런보다 단타 노려야
- ◇ (초점)-수급 위력에 발 묶인 달러/원..방향 가능자 찾기 어려워져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아이언 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을 요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로이터/아미르 코헨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14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28.6	-0.6%	-3.7%	+6.5%	유로	1.2140	-0.2%	-0.6%	+8.9%
100엔 대비	1,029.3	-0.6%	2.2%	+1.1%	엔	109.34	-0.7%	-5.6%	+5.2%
유로 대비	1,366.7	-1.1%	-3.0%	-2.3%	위안	6.4544	0.1%	1.1%	+6.7%
위안 대비	174.88	-1.2%	-4.9%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382.13	-1.1%	12.3%	+7.2%
코스피	3,153.32	-1.4%	9.7%	+30.8%	나스닥	13,429.98	-2.3%	4.2%	+43.6%
코스닥	966.72	-1.2%	-0.2%	+44.6%	S&P500	4,173.85	-1.4%	11.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72.31	-3.2%	1.5%	+19.8%
국고채 3Y	1.116%	-2.1bp	14.0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51%	0.8bp	31.6bp	-14.5bp	미국채 2Y	0.149%	0.2bp	2.8bp	-144.0bp
국고채 10Y	2.158%	3.5bp	44.5bp	+3.0bp	미국채 10Y	1.635%	5.6bp	72.3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5.37	0.7%	34.7%	-20.5%	한국 5Y	18.7bp	-0.6bp	-3.2bp	+0.1bp
금(현물)	1,842.19	0.6%	-2.9%	+25.0%	일본 5Y	17.0bp	-0.3bp	2.0bp	-4.5bp
TR상품지수	2,967.55	-2.7%	10.7%	+7.8%	중국 5Y	38.3bp	1.9bp	10.3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5월 17일(월)>

- 기재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10:00)
- 금감원,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 한은, 4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통계청, 1분기 지역경제동향(12:00)

### <18일(화)>

- 특이 일정 없음

### <19일(수)>

- 공휴일

### <20일(목)>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09:00),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14:00)
- 금감원, 2021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12:00)
-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 <21일(금)>

- 한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10:00), 1차관 정례브리핑(13:30)
- 한은,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5월 17일(월)>

- 일본, 4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중국, 4월 주택가거 (10:30)
- 중국, 1-4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중국, 4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미국, 5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2:00)
- 미국,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18일(화)>

- 일본, 1분기 GDP (08:50)
- 유로존, 1분기 GDP 추정치 (18:00)
- 미국, 4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 <19일(수)>

- 일본, 3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홍콩 휴장

### <2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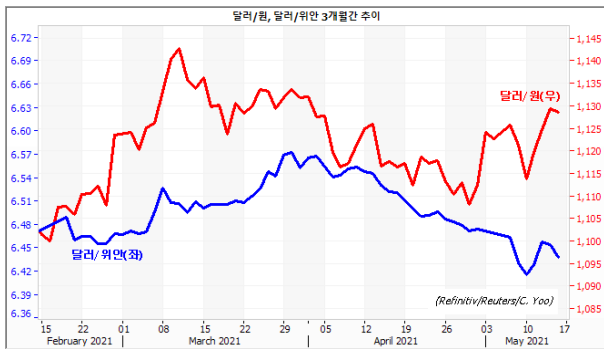
- 연준 FOMC, 4월 27-28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03:00)
- 일본, 5월 로이더단칸 제조업지수 (08:00)
- 일본, 3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4월 수출입 (08:50)
- 중국, 5월 대출우대금리 (10:30)
- 유로존, 3월 경사수지 (18: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5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21일(금)>

- 일본,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5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5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5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4월 기존주택 판매 (23:00)
- 유로존, 5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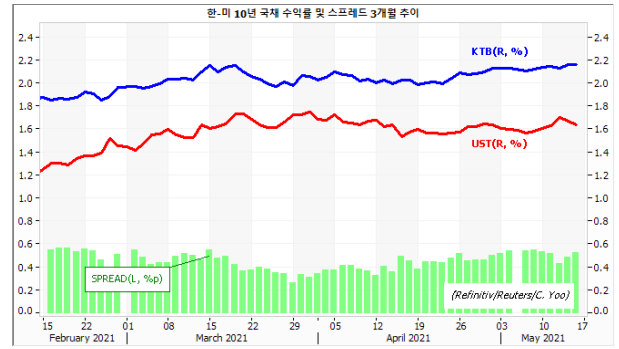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박스권 안에서 수급 상황 따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10-1135 원이다.
- 국내외 주식시장은 변동성 몸살을 앓고 있지만 본격적인 추세 변화보다는 가격 급등에 대한 조정과 경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변동성 확대 정도로 해석되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1.6%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이다.
- 글로벌 달러는 지표 따라 등락 중이지만 약달러 전망은 유지되고 상승압력은 제한되고 있다.
-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 중이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초과수요 및 공급 병목현상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 달러/원은 박스권 상·하단을 오가며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환율의 일시적인 박스권 이탈 시도가 때때로 나타나지만 곧 원래 레인지로 복귀하는 패턴이 최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 수급 구도가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다만 지난 한 주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규모인 6.3 조원을 순매도한 데 따른 시장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18일 예정된 삼성전자 분기 배당 지급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이번 주에는 연준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5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수 및 중국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가 나온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위험자산 가격의 되돌림 속에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전 고정 수준까지 벌어진 만큼 공격적인 숏 공세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지난주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주간이었다. 갑작스럽게 시장을 덮친 인플레이션 공포는 여러 재료가 중첩된 결과였다.
-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확대는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다만, 현시점에서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사실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 많은 이들은 2013년 학습효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도래에 대한 기대 속에 테이퍼링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에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못했다.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로 경제가 오히려 빠르게 식으면서 2013년 말을 정점으로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 당시와 현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다르다.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현시점에선 잠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주초 주목할 것은 국고채 10년물 입찰과 이후 시장의 움직임이다.
- 이번 주 주목할 이슈는 현지시간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4월 FOMC 회의록이다. 연준은 4월 회의록에서도 현재 정책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현지시간 금요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관심이 다.

**(분석)-연준의 정책 전환을 이끌 인플레이션 신호는?**

뉴욕 (로이터)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가 더 나타날까 경계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12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의 정책 전환을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같은 소식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키며 시장을 뒤흔들었다.

체이스인베스트먼트카운슬의 피터 터즈 대표는 "이번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 여부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며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건비나 원자재 비용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는 분명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완화 정책을 전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이후 최대 폭인 0.8% 상승했으며, 이같은 발표에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모두 2%가량 하락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과열 상태는 아니었다"며 "연준은 어느 한 지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에 이로 인해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능하기 위해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일 오후 발표될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미국의 4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기업재고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을 주시하는 이들은 코로나 19 판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세가 과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미국의 백신 접종은 진행 중이며, 많은 주들이 영업 관련 규제를 해제했다. 또 지난 3월 부양책

에 따라 각 가정에 지급된 현금도 수요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미국 4월 취업자 증가세가 예상 외로 둔화되는 등 경제 회복 과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소비자물가지수 지표 발표 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주식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는 금리 전문가들이 연준의 정책 긴축을 예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캐피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이자 선임 트레이더인 패트릭 리어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아직 일시적이라고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채권 시장의 우려가 더 크게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2월 4월 13일 이후 최고치인 1.697%까지 오른 후 거래 후반 7.1bp 상승한 1.69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리 인상 우려에 최근 일부 대형 성장주가 타격을 입었고, 12일에도 나스닥지수가 하락세를 주도하는 등 추세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금리가 언제까지 최저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퀴시 크로스비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말했다.

그는 "지표 하나가 연준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연준이 정책을 전환하려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비용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초점)-美 4월 물가 받아든 韓 채권딜러들의 선택: 흥런보다 단타 노려야**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지표를 받아들이고 국내 채권 딜러들이 고민에 빠졌다.

금리 레벨만 보고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맞느냐부터 매수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단기물 위주로 포지



션을 구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장기물 매입을 늘리는 게 맞느냐까지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 美 4월 물가 '충격'..시장은 통화정책 영향 촉각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인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고 밝혔다. 3월에는 0.6% 상승했고, 로이터 조사에서는 0.2% 상승이 예상됐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월에 2.6% 오른 뒤 4월에는 4.2% 급등해 2008년 9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기저효과에 더해 자동차 공급망 문제에 따른 중고차 가격 급등,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관광 재개 등 미국의 4월 물가 지표엔 일시적 요인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부진, 코로나 19 봉쇄조치의 점진적 해체에 따른 관광·숙박비 상승, 위축됐던 소비의 폭발적 회복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늘고 있다.

채권 딜러들은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이나 추세적이냐를 확인하면서 포지션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세라 하더라도 장기화되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당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책 스탠스의 중립 전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착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이번 물가 지표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최소한 경고의 신호가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도 6, 7월 금통위 회의를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 전략 '갑론을박'..유효타 횡수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채권 샷에 '올인'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

연준이나 금통위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이

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런 기조 변경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한국은행 총재 교체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할 때 조기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당장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오를 경우 포지션을 조금씩 채워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B 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단기물의 경우 현재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한 컨센서스가 당겨지느냐가 관건"이라며 "다만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고 연말까지 유동성 수준이 갑자기 줄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마찰적 요인과 겹쳐지지 않는다면 만기 2년 이하 금리가 급등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년에 금리 인상이 세 번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없고 현재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금리가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장기물의 경우 10년물 2.2%에는 다들 사야 한다고 믿는 듯하다"며 "2년물을 들고 있어도 물리고 10년물을 들고 있어도 물리는 장이라면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단기물에 대한 선호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현물보다는 선물 매수 이점이 크다고 본다"며 "3년물 금리가 1.14%인데 선물 만기시 주는 캐리를 감안하면 1.19%라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와 대내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향을 잡고 베팅하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 지금 알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가 빠질 때 숏 포지션을 잡았다면 오늘 같은 날에는 매수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금 같은 장은 단타를 여러번 날려서 유효타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방향성을 보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 (초점)-수급 위력에 발 묶인 달러/원..방향 가능자 찾기 어려워져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미국 경제지표 결과 따라 박스권 상·하단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를 보이지만, 양방향 수급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일 전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방향에 관한 힌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예상 밖 고용 부진에 1110 원대 초반으로 속락했던 환율은 13일에는 예상보다 크게 오른 물가에 1130 원대로 올랐다.

미국 4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26만 6천명 늘어 로이터 예상치인 97만 8천명을 크게 밑돌았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인 전월비 0.8% 상승했다. 로이터 전망치는 0.2%였다.

한 주 사이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 지표가 전망을 크게 빗나가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달러/원도 박스권 상·하단 테스트에 나섰다.

하지만 환율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 ▲ 매번 확인되는 수급 위력

지난 4월 온건한 기조가 재확인된 연준 정책회의 이후 단기 박스권 하단인 1110 원을 하향 이탈해 하락 추세 굳히기를 시도했던 환율은 해외투자를 비롯한 결제수요가 탄탄하게 유입된 탓에 재차 박스권 내로 회귀했다.

미국 4월 고용 부진에도 이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견조한 저점 달러 수요에 환율의 추가 하락은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수급 위력을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매물을 쏟

아내자 관련 역송금 수요 영향력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로 인해 환율이 이틀간 10원가량 올랐지만, 주식 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환율 반응폭은 크지 않았다. 전날 매섭게 유입된 주식 역송금 수요가 13일에도 만만치 않게 유입 중이지만 환율은 고점에서 반락하며 다시 박스권 안으로 복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 참가자들은 네고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고정 대기 매물이 공격적으로 쏟아지면서 환율 상단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전날 커스터디 매물이 강도 있게 들어왔지만, 네고를 비롯한 다양한 수급이 환율 상단을 막았다. 아울러 오늘도 장 초반부터 역외를 비롯한 물량이 세계 들어왔지만 네고가 규모 있게 들어오면서 환율은 오히려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외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기 매물이 만만치 않다"면서 "역내 수급 형태가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 ▲ 급증한 거래량의 함의

올해 들어 달러/원 현물 거래량이 100억달러대를 기록하는 날이 잦아졌다. 1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이 90억달러대로 작년 이맘때 70억달러대에 비해 큰 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비롯한 해외투자 확대 등 양방향 수급이 함께 확대된 영향이 지목됐다. 아울러 이는 급격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달러/원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 외환거래 플로우 자체도 많이 늘었다"면서 "거래량이 풍부해지면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는데 긍정적인 현상인 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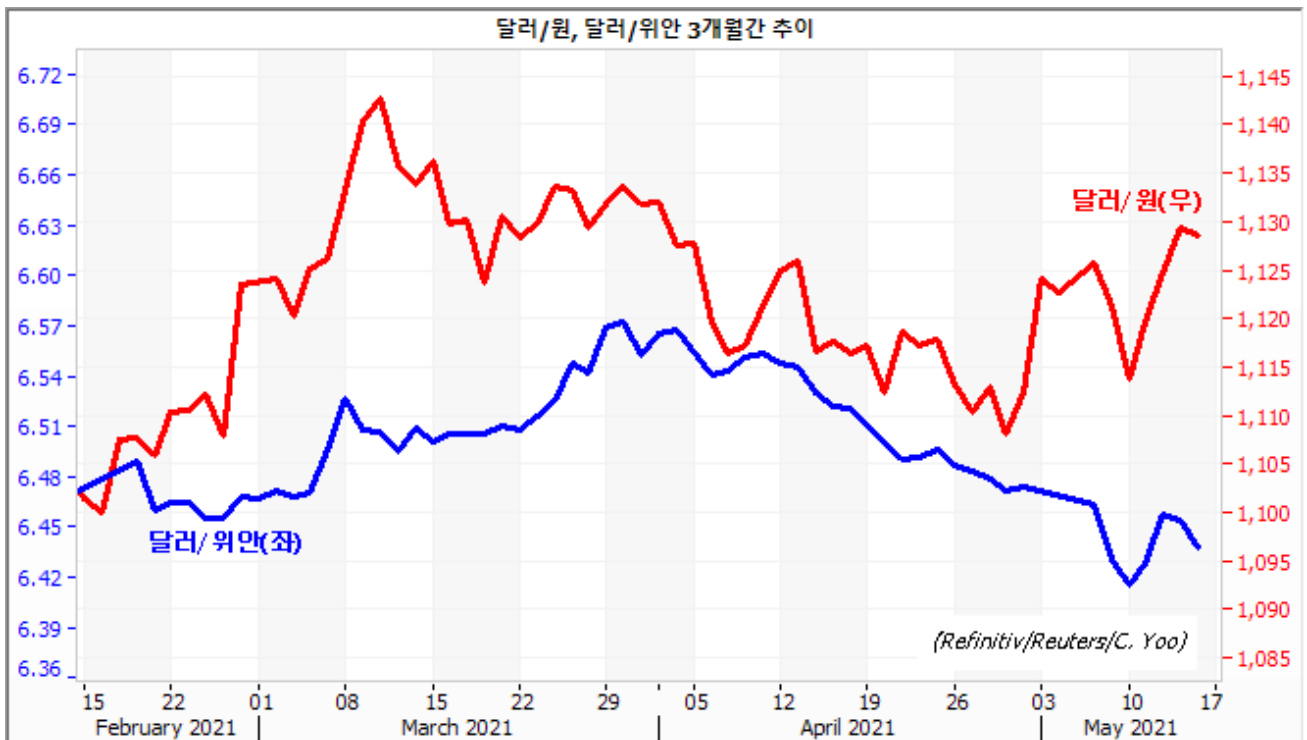
달러/원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와 대외 여건을 저울질 중이지만 아직 환율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은 장착되지 못했다.

다른 은행 외환 딜러는 "환율이 위·아래 움직이지  
만, 아직은 레인지"라면서 "이러다 다시 환율이 박  
스권 하단으로 내려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